

웅상시니어클럽 청춘문화예술단 공연을 꽃사랑채에서 하다



5월 12일(화) 오후 2시, 꽃사랑채(대표 서천성, 시설장 박영은)에서 웅상 시니어클럽 청춘문화예술단이 공연을 하였다. 경로회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함께 관람하였다.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글, 사진 서천성 꽃사랑채 목사

꽃사랑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A등급)기관 인증을 받다



꽃사랑채(대표 서천성, 시설장 박영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5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받았다. 입소시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상남도 1등인 최우수(A등급) 기관 인증을 받았다.

매곡마을에 최상의 요양기관이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입소할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안내해도 좋겠다.

글, 사진 서유기 통장

2026 양산 웅상회야제

‘덕계동 새마을부녀회’가
먹거리촌에서 음식을 판매한다.

웅상체육공원에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6 양산 웅상회야제가 개최되었다. 올해도 ‘덕계동 새마을부녀회’는 먹거리촌에서 음식을 판매하였다. 소고기국밥, 골뱅이무침, 도토리묵, 부추전 등...

새마을협의회(지도자회)와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많은 협조와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글, 사진 정혜승 새마을 부녀회장



자투리 소식

- 2026.
- 04.03. 매곡마을신문 37호 발간
- 04.05. 구암서원 분향례 참석
- 04.06. 병오년 한식모예 봉행 참석
- 04.10. 경로회 정기모임 개최
- 04.15. 2026년 울산총의사 춘향제 참석
- 04.21. 기박산성 추모제 참석
- 04.23. 이상춘 모친상(덕티맥 김필호 여사)
- 04.25. 울산·매곡 돈목계 실시
- 04.25. 강열우 작가 수필집 출간 기념회 개최
- 04.26. 증산문중 2파 화수회 실시
- 05.02. 경로회 봄나들이 실시
- 05.05. 꽃사랑채(목사 서천성) 어버이날 기념 선물 전달
- 05.12. 꽃사랑채 웅상시니어클럽 공연
- 05.16. 증산문중 청년회 이사회 개최
- 05.23. 달성서씨 감찰공파 청장년회 창립총회
- 06.07. 서지성 모친(부동덕 이소남 여사) 별세
- 06.07. 경로회 정기모임 개최
- 06.20. 양산문화원 양산학연구소 회원 4명 증산사당 탐방
- 06.20.-21. 2026 양산웅상 화야제 개최
- 06.27. 증산문중 청년회 분기모임 개최
- 07.16.-19. 서울 동광교회 청년부 꽃사랑채(서천성 목사) 봉사 예정

후원내역

일 자	성 명	금 액(원)	비고
2026.04.21.	서순진	50,000	
04.23.	서동진	30,000	
05.11.	서인주	500,000	
합 계		580,000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불선암 일범스님, 서부기, 서상률, 서웅기, 서원수, 송정복은 정기후원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원합니다.

계좌번호 안내
농협 351-1066-5389-53 매곡마을신문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 마을신문

발행인 서재수
편집국 서웅기 국장, 서영수 부국장
기 자 강열우, 박순이, 서원수, 서영태, 서유기, 서종수, 서정호, 송순금, 송영숙, 정성원, 허해정
재 무 서원수
전 화 010-9289-1046
이메일 s5851@hanmail.net
인쇄처 덕계인쇄사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매곡마을신문

양산 최초의 마을신문

촌사람 이바구 제작소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외산로 216 / 2017년 1월 1일 창간

| 신고번호 (양산, 바9호) |

제38호 2026년 7월 1일(수) 발행

경로회, 봄나들이 다녀오다



5월 2일 경로회원들이 거제도에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서병훈 경로회장을 비롯한 경로회원과 서유기 마을이장과 정혜승 부녀회장과 부녀회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거제 식물원을 관람하고 지세포에서 맛있는 회정식을 먹고 관광유람선을 이용하여 해상관광을 하였고,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거제도 구경을 잘 했다. 어르신들 나들이에 마을 주민을 비롯한 여러분의 찬조와 후원으로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경로회원 여러분은 건강 잘 챙겨서 다음 나들이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글, 사진 서원수 경로회 총무



매곡경로회 정기모임을 갖다



매곡경로회는 매월 정기식사모임을 하고 있다. 4월과 6월에 모임을 실시하였는데 5월은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올해 2명의 회원이 별세하였다. 경로회원 여러분은 건강을 잘 챙겨서야겠다.

2026년에도 경로회원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웃으면서 모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글, 사진 송영숙 기자

강열우 수필집 ‘엄마의 자궁 같은 매화골 마을’ 출간 신간] 낯선 마을에서 다시 태어나다...

아파트라는 거대한 ‘마구간’을 떠나 대운산 자락의 포근한 품으로 스며든 한 예술가의 10년 세월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왔다. 부산예술대학교에서 27년간 공연예술의 길을 걸어온 강열우 교수가 신간 수필집 ‘엄마의 자궁 같은 매화골 마을’을 내놓았다.

이 책은 단순히 전원생활의 낭만을 노래하는 귀촌 일기가 아니다. 다섯 번의 수술이라는 생사의 고비를 넘긴 저자가 양산 매곡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어떻게 치유 받고, 다시 ‘생명’으로서 깨어났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치열하게 기록한 ‘삶의 복원력’에 관한 보고서다.

3부로 구성된 수필집에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지키는 당산의 고요함, 임진왜란 의병장 서몽호의 유산이 서린 마을의 역사,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 된다”라며 툭 던지는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저자는 마을 신문을 만들고 풍물패 ‘난장’을 조직하며 주민들과 부대끼는 과정을 통해, 사라져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책 속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우연한 만남부터, 등이 굽어 ‘기억’자가 되어도 뒷발을 일구는 할머니들의 송고한 노동까지 매곡마을의 생생한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지난 25일 오후 양산 매곡마을 풀꽃교회에서는 특별한 북콘서트 가 열렸다. 지역 주민과 문화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화려한 무대 대신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서원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김정원 시낭송가의 낭독을 시작으로, 책 속에 등장하는 실제 주인공들이 직접 마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낭송하고 소감을 전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웃음과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저자 강열우 교수는

“야파트라는 공간이 소음과 갈등의 장소였다면, 매곡마을은 제게 ‘엄마의 자궁’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 이 공간에서의 10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다시 태어남’의 기록입니다. 이 책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정서적 고향’을 환기시킨다”며 “진정한 행복과 노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따뜻한 위로이자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트비즈 정선 기자 2026년4월27일 기사 발췌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선물을 하다

풀꽃교회(서천성 목사)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5일 경로회원을 위한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우리살 전병과 헤어드라이기, 대만파스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직접 전달했다.

동네 어르신들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화장실 좌변기 부속 교체 작업과 실내등 교체를 순차적으로 예정하고 있다.

서천성 목사님의 섬기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글, 사진 서원수 경로회 총무



2026년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건강교실) 종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 4월 2일부터 6월4일까지 11회차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1시간씩 이선영 선생님의 지도로 건강교실을 실시했다. 건강한 모습으로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사진 매곡 경로회 총무 서원수



내 별명 삼순이

-박순이-

우습기도 하지?

삼순이 내 별명

어느날,

허당끼 많은 세자매를 보고

욕신의 키랴 마음의 키가

나보다 앞서간

친정오라비가 불러준 별명이래

큰언니 일순이

작은언니 이순이

나는야 삼순이

어쩔 좋아

그후론

난,

정말 삼순이가 되었어

하늘의 별들이

한 움큼 내려와

재잘대며 떠들던 날

그만, 내 별명

밭 없는 말이 되었어

오늘은

사랑대는 바람이라는 녀석이

은근히 흉내를 내고가네

“일순아~

이순아~

못말리는 삼순아~”



달성서씨 시조묘역 한식묘향 참가

달성서씨 대종회에서 4월 6일에 2026년 병오년 시조묘역 한식묘향(시조~5세조)'을 봉행하였다. 대구시 동구 용천로 30길 54-7 중심재에서 모여 거행하였다. 많은 종원이 참석하였는데 증산문중에서도 약10명이 참석하였다.

글, 사진 서영수 증산문중 총무



구암서원 분향례 참가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에 구암서원 송현사와 초헌당 일원에서 달성서씨 청년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분향례에 참석했다.

4월 5일은 감찰공파가 진행하였는데 서영수 울산지회장과 서기철 매곡문중 청년회 감사가 참석하였다.

9시부터 주변 정리를 하고 상견례 후에 분정을 하고 분향례를 실시하였다.

글, 사진 서영수 달성서씨청년회 울산지회장

달성서씨 감찰공파 증산문중 두자망자 파종회 회수회 개최

4월 26일(월) 12시 매곡동 '장수하늘소' 식당에서 두자망자 파종회(회장 서창기)의 춘계 화수회(花樹會)가 열렸는데, 약 20명이 참석하였다.

화수회는 종원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매년 4월 넷째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글, 사진 서기수 종원



달성서씨 감찰공파 청장년회 창립총회 개최

5월 23일 오후 2시 대구시 구암서원 백인당 2층에서 달성서씨 감찰공파 청장년회가 개최되었다. 대구 원대문중 서정학을 회장에 선출하였고 매곡문중 서영수 총무가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매곡문중에서는 서능기 문장과 서동학 청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조의 뜻을 기리고 종친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글, 사진 서영수 증산문중 총무



구암서원(龜巖書院)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서원이다. 1975년 2월 5일에 '건조물 경복 제2호'로 지정, 1982년 3월 4일에 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

구계 서침의 덕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서원이다. 서침은 고려말~조선초의 변혁기에

향촌에 은거하며 학문 연구에 노력하였다. 대구부인이 구계선생을 구암서원 송현사에 봉향하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구계선생이 조선초에, 달성서씨 曹孫(주손)으로 세거자인 달성에 살았는데 임금께서 달성이 국가의 군사요새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命換其址(명환기지)케 하고 蓮信(현재의 영선시장자리)과 新池(현재의 서문시장) 下의 蒙利土地(몽리토지)에 대한 세금을 서씨 일문에 받게 하고, 南山古驛(남산고역)과 東山一帶(동산일대)의 땅을 下賜(하사)하며, 두터운 상과 세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曹孫(주손) 구계선생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국왕의 땅이거늘 국가시책에 따라 땅을 바친다고 어

찌 臣(신) 혼자만이 부귀를 바라겠습니까?」라고 재연히 사양하고는 일가의 사사로운 은혜를 받기 보다는 대구부인이 고르게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대구지방의 還穀利子(환곡이자)를 한 섬에 다섯 되씩 감해 주시기를 청하여 임금의 윤허를 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뒤 대구부인이 조선말까지 그 혜택을 입었다.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서원에 들어서면 관리사인 백인당, 정문인 연비루, 동재(경례재), 서재(누학재), 강당(초헌당), 내삼문(경안문), 맨 위에 사당인 송현사가 있다. 구암서원은 정남향으로 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을 가지고 있고, 대구 시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원으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현재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연 1만 5천 명이 선비문화체험을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말까지 수료생은 10만 명이 넘었다. 개방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2025년부터 매달 1한번씩 야간개장을 한다. 구암서원야경은 대구 야경 심경 중 하나다.

위키백과에서 발췌하다.

달성서씨 감찰공파 울산·매곡문중 돈목계 정기총회



4월 25일 울산문화 사무실에서 달성서씨 감찰공파 울산·매곡문중 돈목계 정기총회가 약30명이 참석하여 열렸다. 매곡문중에서도 10여 명이 참석했다.

돈목계는 8세조 諱(휘) 乾孫(건손) 후손들의 거주지역을 교차 방문하여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면서 설립취지와 정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

서연호 회장은 울산문화 회장님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고, 돈목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감사인사를 하였다. 감사보고와 결산보고를 마치고 서광현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서영수 매곡문중 총무를 감사로, 매곡문중 등 당연직 임원을 결정하였다.

내년에도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글, 사진 서영수 돈목계 총무